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이스트스프링 디딤글로벌리더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5년 06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계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주식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
산배분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82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991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886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2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6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4년 09월 27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헤지 비중 **89.7%**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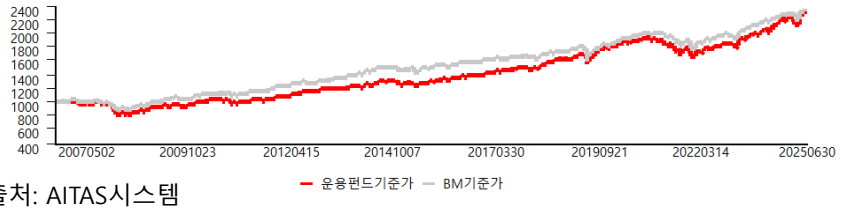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44%	6.44%	5.98%	11.95%	25.69%	34.65%	33.05%	128.94%
클래스 C-P(퇴직연금)	1.34%	6.13%	5.37%	10.64%	22.73%	29.95%	25.35%	57.66%
클래스 C-P(퇴직연금)E	1.37%	6.22%	5.54%	11.01%	23.56%	31.26%	27.48%	54.97%
클래스 C-P2(연금저축)E	1.36%	6.20%	5.52%	-	-	-	-	7.78%
벤치마크	1.17%	3.51%	3.56%	7.52%	19.08%	27.16%	31.60%	132.6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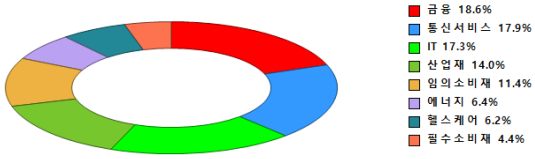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6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6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국가	섹터	비중(%)
Meta Platforms inc	미국	통신서비스	5.4
NVIDIA Corp	미국	IT	4.8
Broadcom Inc	미국	IT	4.7
Spotify Technology SA	스웨덴	통신서비스	4.7
Siemens Energy AG	독일	산업재	4.4
Expand Energy Corp	미국	에너지	4.3
Crowdstrike Holdings Inc	미국	IT	3.3
Tencent Holdings Ltd	중국	통신서비스	3.3
L3Harris Technologies Inc	미국	산업재	3.2
Boston Scientific Corp	미국	헬스케어	3.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6%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6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펀드의 비교 지수 기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대형 기술주, AI인프라, 산업재 및 에너지 등 경기순환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견조한 경제 지표와 미연준의 하반기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주식시장을 지지하였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지역은행과 필수소비재는 대출 조건 강화와 가격 경쟁력 약화로 부진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는 완만한 성장을 시사했고, 기술 및 자본재 기업의 실적 호조가 시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럽주식시장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유럽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 기조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모펀드에서는 금융 및 통신서비스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펀드 성과를 끌어 올렸습니다. 산업재에서의 종목선택과 비교지수 대비 높은 편입비중도 펀드 성과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재량소비재와 헬스케어 업종에서의 종목선택 부진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는 미국, 스웨덴, 캐나다 시장에 대한 배분이 펀드 성과에 성공적이었고 네덜란드, 인도, 중국 시장에서의 자산 성과는 펀드 성과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6월 시장은 대선 종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대가 부각되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금리는 하방이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부동산 및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물가 우려를 자극하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역시 후퇴했습니다. 이처럼 월중 대내외 인하 기대가 모두 약화되며 금리는 하단이 제한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2.0bp 상승한 2.455%,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3.5bp 상승한 2.807%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미국 주식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펀드매니저는 장기적 전망에 대하여는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이슈가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구조적 성장 테마에 대한 노출과 거시적 리스크 대응 유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소득 성장률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소비는 회복력을 유지하며, 미국 기업들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당량의 잉여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는 구조적 및 지정학적 테마를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단순히 방어적인 방향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강한 섹터에 집중하고 있으며 산업재, 에너지, 재량소비재 부분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프라 투자확대, 에너지 안보 그리고 소비 회복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전력생산, 사이버보안, 국방 분야는 정책 변화와 글로벌 흐름에 힘입어 유망하다고 판단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렇듯 변동성 장세속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유연하고 민첩한 접근 방식을 통해 미래 리더십 확보의 잠재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2분기 성장률의 마이너스 지속 여부,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타격 정도, 그리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회복 속도 등이 향후 통화완화 기조 및 기준금리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으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발표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1.7%에서 1.4%로 하향 조정되고, 실업률 전망은 4.4%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은 유지되었으나, 동결을 전망한 위원 수는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 분화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이 여름 중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고용시장도 여전히 견조해 하드데이터 측면에서 뚜렷한 둔화 조짐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4.25~4.50%)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